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4. 8.(목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최승필, 주무관 이명신 • ☎ (044) 201-3874, 3883
	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	담 당 자	• 팀장 서건철, 부장 김승현, 차장 김보성 • ☎ (054) 811-3510, 3517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고속도로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‘에너지 자립 고속도로’ 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한다

- 고속도로 유희부지 활용, `21년 태양광 발전사업 30MW 추진
- 20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, 연료전지 구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「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」 모집 공고를 4월 9일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희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,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.

○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.

※ (발전량) 149MW × 3.6h(태양광 일평균 발전시간) × 365일 ≒ 195GWh

- 태양광 일평균 발전시간 : 전력거래소 「태양광 발전사업 안내서」('18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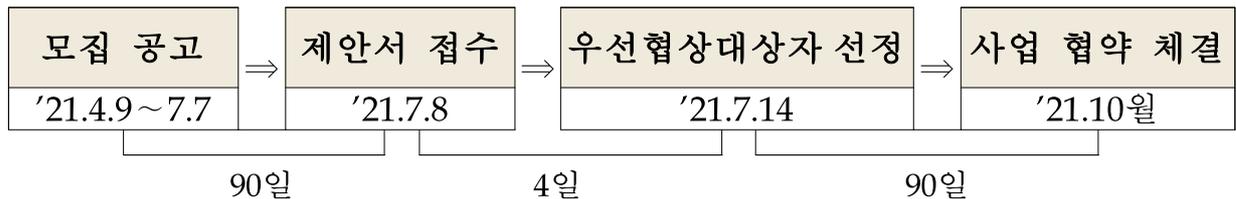
(사용인구) 195GWh ÷ 1,358KWh(연간 1인 가정용 전력사용량) ≒ 14만 명

- 연간 1인 가정용 전력사용량 : 한국전력공사 「KEPCO in Brief」('19)

□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,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%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.

○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, 고속도로 나들목·분기점의 녹지대,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,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·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.

< 선정 절차 및 일정 >



○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,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, 재무, 경관, 건설, 관리운영 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(www.ex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*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,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**도 구축할 예정이다.

* '25년 고속도로 예상 소요 전력량 700GWh/년을 태양광 44%, 연료전지 56%로 발전

** '25년 목표 : 연료전지 설비 3개소 구축(50MW, 약 20,000m²)

-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현 과장은 “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면서,
- “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,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최승필 사무관(☎ 044-201-3874), 한국도로공사 김보성 차장(☎ 054-811-3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



성토부

익산포항고속도로 (전북 진안군, 977kW)



녹지대

중부고속도로 진천 나들목 (993kW)